



보도 일시	(지 면) 2.10(금) 조간 (인터넷) 2.9(목) 12:00	배포 일시	-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손후근 (044-204-7920)
		담당자	사무관 최 승 (044-204-7926) 주무관 박혜정 (044-204-7912)

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업 우수 상생협력 활동, 12월 「이달의 상생공(불)」 선정

- 상생공(불),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 격려 및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
-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포스코), 농식품 유망 기술 발표회 개최(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폐기물 저감 지원(대상),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포스코인터내셔널), 온실가스 감축 지원(삼성전자) 등 5개 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2년 12월 「이달의 상생공(불)」로 '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 주식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등 총 5개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공(불)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매달 포상한다.

이달의 상생공(불)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공(불)'을 받고, 동반성장 포상 시 가점 및 동반성장 우수사례집에 소개되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

'22년 12월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포스코 :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교육 운영, 수료생 90%가 51개 협력사에 취업
- ②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술발표회 개최, 1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업무협약 9건 체결
- ③ 대상 : 농수산물식품 분야 동반성장 탄소중립 협약 체결 및 폐기물 저감 지원
- ④ 포스코인터내셔널 : 국내 6개 중소·벤처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베트남, 두바이 등)
- ⑤ 삼성전자 : 온실가스 감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① ‘포스코’는 ’22년 4월부터 7개월간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포스코 협력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포항에서 8차, 광양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청년들은 2개월 합숙을 통해 교양·인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기 용접·천장기중기(크레인) 등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교육을 진행한 결과, 수료생 중 약 90%인 153명이 51개의 포스코 협력사 취업에 성공했다.

②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기술 수준이 취약한 농식품 경영체 및 농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농식품 기술개발 (R&D) 유망 기술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농식품 기술거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발표회에는 51개 연구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101건의 기술 상담 및 기술 수요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기술이전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 및 여성을 위한 농업용 이동플랫폼 기술’ 등 총 1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업무협약 9건을 체결했다.

③ ‘대상’은 ’22년 12월 27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함께 「농수산물 분야 동반성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세계(글로벌) 기후 위기 개선과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이에스지 (ESG) 실천, ‘김치의 날’ 제정 지원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금형·성형 협력사들과 협업하여 최적화된 경량화 포장재 개발을 통해 폐기물을 연간 약 300톤 저감하였다.

④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2년 6월부터 6개월간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6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해외법인지사에서 축적한 연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들을 연결하며 계약서 법무 검토, 고객사 신용도 조사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베트남 수출상담회 참여 지원을 받아 7개 현지 구매자(바이어)들과 총 16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기업 ‘펜타게이트’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베트남 지사와 협업하여 동남아 진출을 시작했으며, 베트남 공기업, 빈증성정부와 3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⑤ ‘삼성전자’는 ’22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광주, 구미, 수원 등에서 182개 기업의 임직원 234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탄소중립 개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감축 방안 등 이론 교육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영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우수사례들이 「이달의 상생 공(불)」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